

안녕하세요?
여기는
콜롬비아예요!



안녕하세요?
우리는 마고와
파올로예요!

우리 함께 콜롬비아
여행을 시작해
볼까요?



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
나라예요.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 나라의
인구는 약 4,900만 명이고, 그중 교회
회원은 20만 명 정도예요.



콜롬비아는 열대 기후라서
다양하고도 수많은 동식물이 살고
있지요. 사실,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새들의
종류가 다양한 곳이기도 해요. 콜롬비아의 새들은 그
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종이에요.
여기 보이는 알록달록한 풍금조도 그런 새 중 하나지요.



이 여자아이는 **아레파(arepa)**를 먹고 있어요.
아레파는 옥수수가루로 만든 맛있는 케이크예요.
콜롬비아 사람들은 대개 아레파에 치즈와 고기를
곁들여서 먹어요.



여기에 보이는 곳이 새로 지어진
성전이에요. 콜롬비아에는 성전
한 곳이 더 있어요, 그 성전은
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에 있어요.



콜롬비아 바랑키야 성전은 이번 달에 헌납된 지 1주년이
되었어요.



콜롬비아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
보세요!



“복음 때문에 제 삶은 축복을
받았어요. 복음이 있어서 저는
행복해요.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
살아 계시단 걸 알아요. 그분은
우리를 사랑하시고, 선지자
조셉 스미스가 이 교회를
회복했다는 것도 알아요. 우리를
인도해 주시는 선지자가 계셔서
감사해요.”
카밀라 알, 10세, 콜롬비아 바에델카우카



우리의 콜롬비아 여행에
동행해 주어서 고마워요.
내년에 또 만나요!

콜롬비아에서 12월 7일은 **el Día de las Velitas**(작은 촛불의 날)이에요.
사람들은 성탄절 기간이 시작될 때 수천
개의 촛를 켜서 거리를 밝혀요.



“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
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
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온
마음으로 알아요. 그분들은 조셉
스미스에게 모든 사람이 볼 수
있도록 물몬경을 번역하라는
계시를 주셨어요.”
루이스 브이, 12세, 콜롬비아
바에델카우카



여러분도 콜롬비아에서 왔나요?
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! 우리는 여러분의
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!